

이기중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



SI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내농장 지킬수 있어

전국단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단위 7일간 이동제한
계열화사업자-농가-시설 방역조치

철새가 대한민국 땅을 찾아 오는 겨울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철새 도래와 함께 S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H5형 SI 항원이 검출됐다. 최종 바이러스에서는 SI가 미검출됐지만 본격적인 SI 위험시기가 도래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10월부터 '20.2월까지 S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에 돌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S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겨울철새는 '19.10.22일 기준 지난해 동기보다 34%나 증가('18년 455천수 → '19년 611천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충남 등 철새도래지에서 S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겨울철새는 내년 초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설상가상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국내 최초로 발생됨에 따라 모든 방역 인력과 장비 등 물자가 총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경방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가금농가, 지자체, 농식품부는 혼신을 다해 SI 차단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이기중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으로 부터 오리농가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달라진 고강도 방역정책에 대해 들어본다.

Q. 올 겨울 AI 방역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위험시기인 동절기(19.10월~'20.2월)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농식품부에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전국의 방역상황을 지속점검하고,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과거 AI 반복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밀집단지 등 전국 11개 시·도 88개 시·군·구에 소재한 516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시설 점검과 농가 예찰을 강화합니다. 종오리, 종계, 산란계 등 AI 취약축종과 도축장에 대한 검사도 확대 실시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0개소)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반복 발생 지역에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월 2회) 운영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만약 AI가 발생한다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대응을 통해 전파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AI 발생 즉시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여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단위 7일 간 이동제한, 해당 계열 화사업자 소속 농가와 시설에 방역조치 등 과거보다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Q. 예년과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I 사전 예방을 위해서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가금농가 단위의 방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먼저 전국 96개 철새도래지별 위험도를 분석해 소독을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과거 AI 발생 내역, 야생조류 항원 검출 내역, 가금 사육 밀집도 등을 종합 분석

하여 철새도래지별 위험도를 3단계(고위험-중위험-저위험)로 분류(하단 표 참조)하고, 고위험 철새도래지(20개소)에 대해서는 군 제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하여 매일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가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중위험(59개소), 저위험(17개소)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되, H5·H7형 항원이 검출되면 고위험 철새도래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을 강화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이 검출되어야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지금은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H5·H7형 항원이 나오는 즉시 반경 10Km 지역에 대한 이동통제와 예찰·검사, 소독 등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과거보다 2~3일 빠른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가금농가 전체에 대한 방역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농가별 취약요소와 농가별 점검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농가 단위 방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방역 취약농가에 대

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관리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살아있는 가금을 유통하는 시설(가금 공급 농장,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가금 판매소, 가든형 식당 등)을 지자체에 등록하고 가금 유통단계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등록 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찰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 ASF 발생 상황아래서 가금농가들이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할 AI 방역 수칙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ASF 발생으로 AI 방역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금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철저히 준수하면 AI로부터 내 농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 필수 방역수칙

1.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2.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3. 그물망, 울타리, 전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 구멍 난 축사는 즉시 정비
4.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와 소독
5.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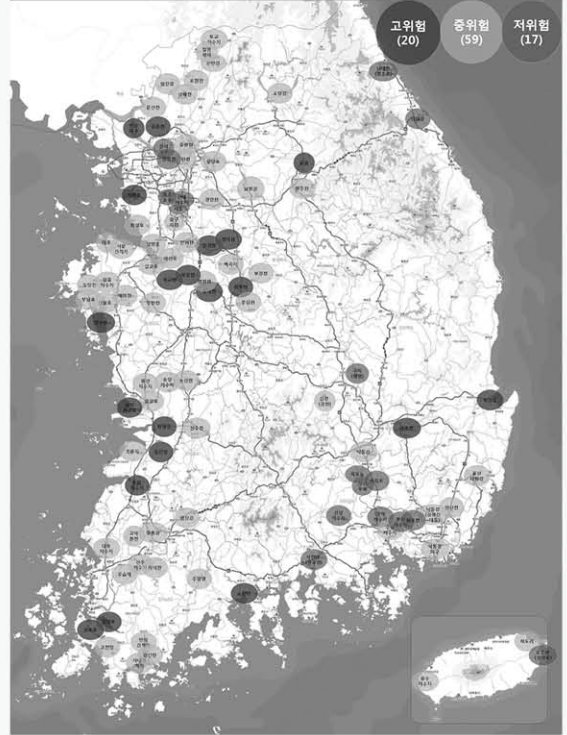
Q. 특별방역기간, 오리 농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3년 이후 우리나라에 발생한 1,055건의 AI 중 551건(52%)이 오리에서 발생했고, 오리 551건 중 124건(23%)이 종오리입니다.

오리는 특성 상 AI에 걸려도 임상증상이 거의 없어 감염 여부를 인지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축산차량과 사람 등 매개체를 통해 쉽게 다른 농가나 시설로 AI가 전파될 수 있으므로 차단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기간 사육하는 종오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중 농가에 사람과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축사나 그물망에 훼손된 곳은 없는지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오리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왕겨살포기는 과거 AI 전파 매개체로 확인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축사 출입을 금지하고 사용 전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계열화사업자에게도 당부 드립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소속 농가와 시설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I 방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가금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 관계기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AI 없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96개소) AI 위험도 분류



위험도	철새도래지
고위험 (20개소)	(경기) 안성천, 청미천, 시화호, 한강하구, 공릉천, (강원) 섬강, (충북) 미호천, (충남) 봉강천, 풍세천, 곡교천, 천수만, (전북) 동림저수지, 동진강, 만경강, 금강하구둑, (전남) 순천만, 금호호, 영암호, (경북) 금호강, 형산강
중위험 (59개소)	(서울) 탄천, 중랑천, (경기) 남한강, 팔당호, 경안천, 진위천, 남양호, 황구지천, 화성호, 상패천, 문산천, 임진강, 포천천, (강원) 토교저수지, 한탄강, 철원평야, 소양강, 원주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백곡지, (충남) 병천천, 아산호, 봉선저수지, 금강호, 논산천, 송정저수지, 삽교호, 도당천, 해미천, 간월호, 부남호, 잠룡저수지, 석문간척지, 대호, 무한천, (전북) 조류지, 전주천, (전남) 주암댐, 산수저수지, 영산강, 고막원천, 대동저수지, 고천암, 사내간척지, 만덕간척지, 강진만, 우습제, 지석천, 황룡강, (경북) 낙동강, 감천, (경남) 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 태화강, 양산천, 낙동강, (제주) 하도리, 용수저수지
저위험 (17개소)	(서울) 안양천, 강서 생태공원, (경기) 신대저수지, 서호, 왕송호수, (강원) 남대천, 남대천(청초호), (경북) 해평, (경남) 우포늪, 장척저수지, 목포늪, 사지포, 산남저수지, 동판저수지, 화포천, 사천만, (제주) 오소리